

<서평>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독일성서공회가 2014년에 내놓은 <성서 속의 인물들. 그림 넣은 성서 사전>(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은 1994년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소시에이션(Reader's Digest Association)에서 엮어낸 『성서 속의 인명록(人名錄). 그림 넣은 전기(傳記) 사전』(Who's Who in the Bible? An Illustrated Biographical Dictionary)의 본문을 대체로 자유롭게 번역하고 그림은 대부분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새롭게 만든 책이다.¹⁾ 가로 18,2 센티미터, 세로 27,5 센티미터 크기의 432쪽에 이르는



영어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의 앞표지 모습

* Kirchliche Hochschule Berlin (현, Theological Faculty of Humbolt University in Berli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교수. dhpark52@gmail.com.

1) 일찍이 한글로 나온 이런 종류의 책으로는 오인명, 『성경인명지명대사전』(서울: 기문사, 1954)을 들 수 있다. 한글로 번역된, 예수와 바울의 전기 가운데서는 각각 F. 오우슬러 저, 『위대한 생애』, 홍성영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과 존 폴락, 『사도 바울』, 홍종락 역(서울: 홍성사, 2009)이 특히 읽어볼 만하다.

꽤 큰 책으로 종이도 그림이 잘 인쇄될 수 있도록 두껍고 좋은 것을 써서 아주 고급스런 모습으로 나온 책이다. 이 점에서 겉보기만으로도 이 책은 원본 영어책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데 이 책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영어 원본과 다르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 책이 영어 원본과 다른 점(2.)을 살펴본 다음에 이 책의 출판 배경(3.), 이 책에 들어 있는 항목(4.), 이 책에 들어 있는 그림 자료(5.), 이 책에 들어 있는 다른 자료(6.), 각 항목의 서술 형식(7.), 각 항목의 서술 내용(8.), 이 책 전체에서 받는 느낌(9.), 이 책이 좋은 점(10.), 이 책에서 고쳐야 할 점(11.), 이 책에서 아쉬운 점(12.)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2. 이 책이 영어 원본과 다른 점

1) 이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영어 원본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을 그대로 다 다루지 않는다. 영어 원본의 505 항목 가운데서 41 항목은 빼고, 464 항목만 번역한다. 그 가운데서 고멜과 바룩과 아간과 아굴라와 하만과 힐기야처럼 성서의 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큰 인물들은 빠뜨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각 항목의 올림말인 이름 다음에 나오는 원어 소개도 영어 원본 그대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충했다²⁾.

3) 그림 자료는 대부분 바꾸었다. 그림 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어 원본에 들어 있는 좋은 자료가 빠진 경우도 있다³⁾.

4) 연대표도 바꾸었다. 171쪽의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연대표를 영어 원본 202쪽의 연대표와 견주어 보면 여러 군데가 다르다. 그에 맞추어 항목 서술에 나오는 연대도 바꾸었다.

5) 각 항목의 내용도 영어 원본 그대로 옮기지 않고 줄여 옮기거나 보충하여 늘이기도 했다.

6) 영어 원본에는 들어 있지 않는 소제목을 넣기도 했다⁴⁾.

7) 영어 원본과는 다른 소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다⁵⁾.

2) ‘말고’ 항목에서는 라틴어 ‘말쿠스’ 다음에 나바테아어 ‘말리쿠’를 덧붙였다(253쪽). 이 글에서 독일어 번역본의 해당 쪽수는 그냥 괄호 안에 적어 넣기로 한다.

3)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욥의 아내가 욥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물통의 물을 욥에게 부어주는 장면이 그런 보기이다(영어 원본 227쪽).

4) 이를테면, ‘리브가’ 항목의 앞부분에 나오는 첫 소제목 ‘늦은 출산’이 그러하다(340쪽).

5) ‘요한(세례)’ 항목에 들어 있는 영어 원본의 첫 소제목인 ‘기대하지 않은 메시지’(234쪽)를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공동의 임무’로 바꾸었다(207쪽).

8) 영어 원본과 다르게 단락을 나누기도 한다⁶⁾.

9) 영어 원본 부록(441-470쪽)에서는 신구약성경과 외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이름 목록(‘Everyone in the Bible’)이 있다. 이 목록에는 각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을 밝혀 놓았다. 그런데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이 목록을 뺐다.

10) 여러 가지 점에서 독일어 번역본은 영어 원본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 매우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개선한 편역본이라 할 수 있다.

3. 이 책의 출판 배경

이 책은 독일성서공회가 루터 성서 500주년인 2017년을 바라보면서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관련 출판물을 내는 가운데 2015년의 주제 ‘그림과 성서’(Bild und Bible)에 맞추어 펴낸 책이다⁷⁾. 이런 출판 기획 의도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성서 속의 인물들>은 그저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양 기독교 미술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기독교 성화가 성서 이해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요즈음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기독교 문예학의 한 가지 중요한 자료가 될 만하다.⁸⁾

4. 이 책에 들어 있는 항목

1) 이 책에서 개별 항목으로 다루는 이름은 모두 465개이다. 이 가운데서 ‘안네’와 ‘암브레’는 한데 묶어 다루기 때문에 실제 항목의 총수는 464개이다. 그 전체를 한글 음역을 따라 가나다 순서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⁹⁾.

6) 이를테면, 영어 원본 ‘아론’ 항목의 둘째 단락(7쪽)을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다시 둘로 나누어 둘째, 셋째 단락으로 만들었다(7쪽).

7) <http://www.bibelonline.de/products/Themenjahr-2015-Bild-und-Bibel/Die-Menschen-der-Bibel.html>에서 독일성서공회가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8) 서양 미술과 성서의 관계를 다룬 최근 국내도서로는 김학철,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김진명, 『모세를 만나다. 하나님의 사람, 소통과 공감의 지도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가 있다.

9) 신구약 정경에 나오는 이름의 한글 음역은 개역개정판을 따라, 외경에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외경에만 나오는 이름은 가톨릭 성경의 음역을 따라 적기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경에만 나오는 이름은 괄호로 둘러쌌다. 이 책에서 쓰는 이름이 가톨릭 성경의 이름과 다를 때

가나안⁰, 가말리엘⁰, 가브리엘¹, 가야바¹, 가인⁰, 갓⁰¹⁰, 갓²⁰¹¹, 게르솜⁰, 게르손⁰, 고넬료⁰, 고라¹, 고레스 2세⁰, 골리앗¹, 구레뇨¹, 구산리사다임⁰, 그달랴⁰, 그두라¹, 그리스보⁰, 그핫⁰, 글라우디오⁰, 글레멘드⁰, 글레오바¹, 글로에⁰, 기드온², 기스⁰, 나다나엘⁰, 나단¹, 나답¹¹², 나답²⁰¹³, 나발⁰, 나봇⁰, 나사로⁰¹⁴, 나사로²⁰¹⁵, 나아만⁰, 나오미¹, 나홀⁰, 나훔⁰, 납달리⁰, 노아³, 누가¹, 느고 2세⁰, 느부갓네살¹, 느부사라단⁰, 느헤미야¹, 니고데모¹, 니콜라⁰, 니므롯⁰, 다곤⁰, 다니엘³, 다단⁰, 다대오¹, 다리오 메대 사람⁰, 다리오 1세¹, 다마리⁰, 다말⁰¹⁶, 다말²⁰¹⁷, 다윗³, 단⁰, 더디오⁰, 데라⁰, 데마⁰, 데메드리오⁰, (데메트리오스 [1세 소테르]⁰, 데메트리오스 [2세] 니카토르⁰), 데오빌로⁰, 도르가⁰, 도액⁰, 드다⁰, 드로비모⁰, 드루실라⁰, 도마¹, 도비아⁰, 돌라⁰, 두기 고⁰, 드보라¹, 디글랏빌레셀 3세⁰, 디나⁰, 디도⁰, 디모테¹, 디베료⁰, 디브니⁰, 디오누시오⁰, (디오니소스¹), 라멕⁰¹⁸, 라멕²⁰¹⁹, 라반¹, (라파엘¹), 라합⁰²⁰, 라합²⁰²¹, 라헬¹, 레갑⁰, 레아¹, 레위⁰, 로이스⁰, 롯¹, 루디아⁰, 롯², 르신⁰, 르우벤¹, 리브가¹, 르호보암¹, 리스바⁰, 마가¹, 마길⁰, 마나엔⁰, 마노야⁰, 마리아²²², 마리아²⁰²³, 마리아³⁰²⁴, 마리아⁴⁰²⁵, 막달라 마리아², 마르다⁰, 말고¹, (마타티아스⁰), 마태¹, 말라기⁰, 맛디아¹, (메넬라오스⁰), 메랍⁰, 메사¹, 멜기 세텍¹, 모르드개¹, 모세⁶, 모압⁰, 므낫세¹²⁶, 므낫세²⁰²⁷, 므나손⁰, 므나헴⁰, 므두셀라, 므로다발라단⁰, 므립바알⁰, 미가¹²⁸, 미가²⁰²⁹, 미가야⁰, 미가엘¹,

는 그 다른 부분을 [] 안에 넣었다. 또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신들의 이름과 천사들의 이름과 괴물의 이름도 들어 있다(본문의 4.3)을 보라). 이름 뒤에 올려 쓴 숫자는 그 항목에 들어 있는 그림 자료의 개수를 가리킨다.

- 10) 야곱과 실바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창 30:11).
- 11)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삼상 22:5).
- 12) 아론의 딸아들(출 6:23).
- 13) 여로보암 임금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왕상 14:20).
- 14)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눅 16:20).
- 15)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요 11:1).
- 16) 유다의 딸며느리(창 38:6).
- 17) 다윗의 딸, 압살롬의 친 누이(삼하 13:1).
- 18) 므드사엘의 아들(창 4:18).
- 19) 므두셀라의 아들, 노아의 아버지(창 5:25).
- 20) 여리고의 기생(수 2:1).
- 21) 여호와께 맞선 괴물(욥 9:13).
- 22) 예수의 어머니.
- 23)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마 27:56).
- 24)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누이.
- 25)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행 12:12).
- 26)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의 조상(창 41:51).
- 27)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 남왕국 유다의 임금(왕하 20:21).
- 28) 사사 시대에 살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삿 17:1).
- 29) 모레셋 출신의 주전 8세기 예언자.

미갈⁰, 미디안⁰, 미리암¹, 바나바¹, 바돌로매¹, 바라바⁰, 바락⁰, 바스홀⁰, 바
 아사⁰, 바알⁰, 마예수⁰, 바울⁷, 서기오 바울⁰, 발디⁰, 발락⁰, 발람¹, 버니게⁰,
 베가⁰, 베나민¹, 베드로⁴, 베레스⁰, 베스도⁰, 벤하닷⁰, 벨, 벨렉⁰, 벨릭스⁰,
 벨사살⁰, 보디발⁰, 보디베라⁰, 보블리오⁰, 뵤뵤⁰, 부데⁰, 브가히야⁰, 브나야⁰,
 브두엘⁰, 브리스가⁰, 브살렐⁰, 비느하스⁰, 빌닷⁰, 빌라도¹, 빌레몬⁰, 빌립⁰³¹,
 빌립²¹³², (바키데스⁰,) 사가랴⁰, 사독⁰, 사드락¹, 사라¹, 사르곤 2세⁰, 사반⁰,
 사무엘³, 사울³, 사탄², 삭개오¹, 산발랏, 산헤립¹, 삼비라⁰, [살로메¹³³,] 살
 로메2⁰³⁴, 살룸⁰, 살만예셀 5세⁰, 삼갈⁰, 삼손², 성령², 세겔¹, 세라⁰, 세바⁰,
 세베대⁰, 세스바살⁰, 썸¹, 썸나⁰, 셋⁰, 소발⁰, 소스테네⁰, 솔로몬¹, 스키아⁰³⁵,
 스키아²⁰³⁶, 스키아³⁰³⁷, (수산나¹³⁸,) 수산나2⁰³⁹, 스키아⁰, 스테마나⁰, 스테반¹,
 스키아⁰, 스키아⁰, 스텔바벨¹, 스마야⁰⁴⁰, 스마야²⁰⁴¹, 스마나⁰⁴², 스마나²⁰⁴³,
 (시메온⁰⁴⁴,) 스블론⁰, 스알야숨⁰, 슬로브핫⁰, 시드기야⁰⁴⁵, 시드기야²⁰⁴⁶, 시
 폰⁰⁴⁷, 시몬2⁰⁴⁸, 시몬3⁰⁴⁹, 시몬4¹⁵⁰, 시몬5⁰⁵¹, 시몬6¹⁵², (시몬⁰⁵³,) 시므리⁰⁵⁴,
 시므리²⁰⁵⁵, 시므온2⁰⁵⁶, 시므온3¹⁵⁷, 시므온4¹⁵⁸, 시므이⁰, 시바⁰, 시삭⁰, 시

-
- 30)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Micha3을 적었다(272쪽)
 31)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마 10:3).
 32)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전도자(행 6:5).
 33) 헤로디아의 딸(마 14:6). 성서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34)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막 15:40).
 35)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Sacharja로 적었다(347쪽).
 36)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예언자(대하 24:20).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Secharja로 적었다
 (372쪽).
 37)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유다 임금(왕하 14:29).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Secharja2로 적었다(372
 쪽).
 38) 구약 외경 다니엘서 추가 부분에 나오는 수산나.
 39)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눅 8:3).
 40) 르호보암 시대의 예언자(왕상 12:22).
 41) 예언자 예레미야를 단속하라고 요구한 예언자(렘 29:24).
 42)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슌 1:1).
 43) 시드기야 임금 때의 제사장(왕하 25:18).
 44) 시메온 마카베오(1 마카 2:65).
 45) 아합 시대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왕상 22:11).
 46)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임금(왕하 24:17).
 47) 예수께서 방문하신 베다니 한센병 환자(마 26:6).
 48) 욥바에서 베드로가 묵었던 무두장이(행 9:43).
 49)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마 27:32).
 50)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눅 7:40).
 51)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나나인 시몬(마 10:4).
 52)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행 8:9).
 53) 오니아스 2세의 아들, 대제사장 시몬(집 50:1).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Simeon으로 적었다
 (376쪽).
 54) 미디안 여자와 관계를 맺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 당한 사람(민 25:14).
 55)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된 사람(왕상 16:9).

세라⁰, 시혼⁰, 실라⁰, 실바⁰, 십보라⁰, 아각¹, 아구스도¹, 아기스⁰, 아나니아⁰⁵⁹⁾, 아닥사스다⁰, 아달라⁰, 아담², 아데미¹, 아도니세텍⁰, 아도니아⁰, 아레다⁰, 아론³, 아리스다고⁰, 아마샤⁰, 아모스¹, 아몬⁰, 아므라벨⁰, 아벨⁰, 아볼로⁰, 아브라함⁵, 아비가일¹, 아비아⁰, 아비멜렉⁰⁶⁰⁾, 아비멜렉²¹⁶¹⁾, 아비나답⁰, 아비삭⁰, 아비새⁰, 아비아달¹, 아브넬¹, 아사⁰, 아사헬⁰, 아삽⁰, 아셀⁰, 아킵보⁰, 아하스, 아하시야⁰⁶²⁾, 아하시야²⁰⁶³⁾, 아하수에로 1세⁰, 아합¹, 아히노암⁰, 아히도벨⁰, 아히멜렉⁰, 아히야⁰, 안나⁰, 안나스(눅3)⁰, 안드레¹,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⁰, 안티오코스 [5세] 에우파테르⁰, 안티오코스 [6세 에피파네스]⁰,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⁰), (알렉산드로스 대왕¹, 알렉산드로스 [발라스]⁰, 알키모스⁰), 압논⁰, 압돈⁰, 압살롬¹, 앓투르바니팔¹, 야고보⁰⁶⁴⁾, 야고보²⁰⁶⁵⁾, 야고보³¹⁶⁶⁾, 야고보⁴¹⁶⁷⁾, 야곱⁴, 야벳⁰, 야빈⁰, (야손⁰⁶⁸⁾, 야손²⁰⁶⁹⁾, 야엘¹, 야이로¹, 야일⁰, 얀네와 얄브레⁰, 앓두아⁰, 에글론¹, 에녹⁰, 에바브로⁰, 에바브로디도⁰, 에벨⁰, 에브라임⁰, 에브론⁰, 에살핫돈⁰, 에서¹, 에셀, 에스겔², 에스더², 에스라⁰, 에월므로닥⁰, 에훗⁰, 엘닷⁰, 엘라, 엘르아살⁰, 엘리⁰, 엘리사³, 엘리사벳¹, 엘리야⁴, 엘리에셀¹, 엘리후⁰, 여로보암¹, 여로보암 2세⁰, 여호아하스⁰⁷⁰⁾, 여호아하스²⁰⁷¹⁾, 여호야긴¹, 여호야김⁰, 여호수아², 여호야다⁰, 여호람⁰⁷²⁾, 여호람²⁰⁷³⁾, 여호사밧⁰, 예레미야¹, 예수⁸, 유스도라 하는 예수⁰, (시락의 아들 예수⁰), 예수아⁰, 예후⁰⁷⁴⁾, 예후²⁰⁷⁵⁾, 오니⁰, 오네시모⁰, 오네시보로⁰, (오니아스 3세⁰), 오렘⁰, 오르바¹, 오펀리⁰, 오바다¹⁷⁶⁾, 오바다²⁰⁷⁷⁾, 오벳에돔⁰, 옥⁰, 웃니엘⁰, 와스디¹, 요게벳¹, 요나¹, 요나단⁰⁷⁸⁾, 요나단²¹⁷⁹⁾, ([요

56)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행 13:1).

57) 야곱과 레아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 시므온 지파의 조상.

58)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맞이한 의인(눅 2:25).

59) 바울에 맞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행 23:2).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Hananias로 적었다(119쪽).

60) 창세기 20장의 그랄 왕 아비멜렉.

61) 기드온의 아들(삿 8:31).

62)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로 아합 다음 임금이 된 사람(왕상 22:40).

63) 남왕국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왕하 8:24).

64)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65)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66) 예수의 동생.

67)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형제(마 27:56).

68) 마카베오 역사를 적은 사람(2마카 2:23).

69) 오니아스 3세의 형제, 대제사장(2마카 1:7).

70)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예후의 아들(왕하 10:35).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Joahas로 적었다.

71) 남왕국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왕하 23:30).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Joahas2로 적었다.

72)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로 아합 다음 다음 임금이 된 사람(왕하 1:17).

73) 남왕국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왕상 22:50).

74)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왕상 19:16).

75)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왕상 16:1).

76) 아합 왕궁의 고관(왕상 18:3).

77) 에돔에 다칠 재난을 예고한 예언자.

나탄¹⁸⁰⁾, 요나답¹⁸¹⁾, 요나답2¹⁸²⁾, 요담¹⁸³⁾, 요담2¹⁸⁴⁾, 요셉³⁸⁵⁾, 요셉2¹⁸⁶⁾, 아리마
 대 요셉¹, 요셉 바사바⁰, 요시아⁰, 요아스¹⁸⁷⁾, 요아스2¹⁸⁸⁾, 요안나⁰, 요압¹,
 요엘¹, 요하난¹⁸⁹⁾, 요하난2¹⁹⁰⁾, 요한¹, (요한 [히르카누스 1세]⁰), 밧모 섬의
 요한¹, 세레 요한², 욘¹, 우리야¹⁹¹⁾, 우리야2¹⁹²⁾, 우리야3¹⁹³⁾, (우리엘¹⁹⁴⁾,) 우리
 엘2¹⁹⁵⁾, 울람⁰, 옷사⁰, 옷시아⁰, 유다¹⁹⁶⁾, 유다2¹⁹⁷⁾, 유다3¹⁹⁸⁾, 유다4¹⁹⁹⁾, 유다 바사
 바⁰, 가룟 유다², (유다 마카베오¹), 유두고⁰, (유딧¹), 올리오⁰, 이드로, 이사
 야², 이삭³, 이새⁰, 이세벨¹, 이스라엘, 이스마엘⁰, 이스보셋⁰, 임마누엘⁰, 입다¹,
 입산⁰, 잇사갈⁰, 제우스⁰, (토비아¹), (토빗⁰), (트리폰⁰), (필리포스 [2세]⁰), 하
 갈¹, 하눈⁰, 하나님⁴, 하닷에셀⁰, 하박국¹, 하사엘⁰, 하와¹, 학개⁰, 함¹, [함무라
 비⁰,] 하나님⁰, 한나¹¹⁰⁰⁾, 헤롯 대왕³, 헤롯 빌립⁰, 헤롯 아그립마 1세⁰, 헤롯 아
 그립마 2세⁰, 헤롯 아켈라오⁰, 헤롯 안디바¹, 호세아¹¹⁰¹⁾, 호세아2⁰, 후새¹¹⁰²⁾,
 홀⁰, 홀다⁰, 히람¹¹⁰³⁾, 히람2¹¹⁰⁴⁾, 히스기야¹.

-
- 78)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모세의 손자(삿 18:30).
 79) 사울 임금의 아들.
 80) 유다 마카베오의 막내 동생(2마카 2:5).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Jonatan3으로 적었다.
 81) 다윗의 조카(삼하 13:3).
 82) 레갑의 아들(렘 35:6).
 83) 기드온의 아들.
 84) 유다 임금 옷시아의 아들.
 85) 야곱과 라헬 사이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86)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87) 남왕국 유다 임금 아하시야의 아들(왕하 11:2).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Joasch로 적었다.
 88)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스의 아들(왕하 13:9).
 89) 바빌로니아 임금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라가 암살된 뒤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달아난 지도자(왕하 25:23).
 90) 에스라 시대의 대제사장(느 12:22).
 91) 밧세바의 남편.
 92) 남왕국 유다 임금 아하스 시대의 제사장(왕하 16:10).
 93) 남왕국 유다 임금 여호야김에게 처형된 예언자(렘 26:20).
 94) 에스라에게 나타난 천사장(2에스라 4:10-11).
 95)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대상 6:24).
 96) 갈릴리 출신으로 로마에 맞선 지도자(행 5:37).
 97) 예수의 형제.
 98)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의 아들(눅 6:16).
 99) 유다서의 저자. 영어 원본에서는 Jude로 써서 앞에 나온 세 Judas와 구별했다.
 100) 엘가나의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독일어 번역본에서 Hanna2로 적은 것은 누가복
 음 2:36의 안나를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Hanna로 적었기 때문이다.
 101) 주전 8세기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Hosea로 적어, 임금
 Hoschea와 구별했다.
 102)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Hoschea로 적어, 예언자 Hosea와
 구별했다.
 103) 두로의 임금(삼하 5:11).
 104)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건축 기술자(왕상 7:13).

2) 이 가운데서 신구약정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을 다룬 경우가 32 항목이다. 외경에만 나오는 이름을 다룬 30 항목 말고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 이름은 초대 교부 문서에 나오는 경우인 항목 ‘살로메’ 항목과 창세기 14:1의 ‘아브라벨’을 ‘함무라비’로 보는 견해를 따른 항목 ‘함무라비’의 두 경우가 더 있다.

3) 신(神)들을 다루는 항목이 7개¹⁰⁵⁾, 천사들을 다루는 항목이 5개¹⁰⁶⁾, 괴물을 다루는 항목이 1개¹⁰⁷⁾ 있다.

4) 이리하여 실제로 신구약정경에 나오는 사람을 다루는 항목은 421개이다. 그렇지만 외경에만 나오는 이름을 다루는 항목 가운데서는 다니엘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항목 ‘유다 마카베오’처럼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5) 전체 464개 항목 가운데서 중간에 적어도 소제목을 하나 이상 두면서 길게 다루는 항목은 42개다.¹⁰⁸⁾

6) 위 2.9)에서 말한 영어 원본 부록에 들어 있는 전체 명단에는 모두 3422개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구약정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은 247개이다. 아무튼 이 3400여명 가운데 영어 원본에서는 500여 명만,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다시 거기서 40여 명을 줄여서 460여 명만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점에 대해 영어 원본에서도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7) 신들, 천사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은 아예 빼든지, 아니면 따로 묶어서 부록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¹⁰⁹⁾.

5. 이 책에 들어 있는 그림 자료

105) ‘다곤’, ‘바알’, ‘벨’, ‘성령’, ‘아데미’, ‘제우스’, ‘하나님’.

106)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 ‘우리엘’, ‘사탄’. 그 가운데 ‘라파엘’과 ‘우리엘’은 외경에만 나온다.

107) ‘라합2’.

108) ‘가룟 유다’, ‘기드온’, ‘노아’, ‘다윗’, ‘도마’, ‘룻’, ‘리브가’, ‘마리아’, ‘모세’, ‘바울’, ‘베드로’, ‘비느하스’, ‘사무엘’, ‘사탄’, ‘성령’, ‘세례 요한’, ‘솔로몬’, ‘아담’, ‘아브라함’, ‘야고보3’, ‘야곱’, ‘에스겔’, ‘에스터’, ‘엘리사’, ‘엘리야’, ‘여로보암’, ‘여호사밧’, ‘여호수아’, ‘예레미야’, ‘예수’, ‘예후’, ‘요시야’, ‘요압’, ‘욥’, ‘유다 마카베오’, ‘유딧’, ‘이사야’, ‘이삭’, ‘하나님’, ‘헤롯 대왕’, ‘호세아’, ‘히스기야’.

109) 성서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다루는 최신 사전으로는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 (Michigan: Eerdmans, 1999)을 들 수 있다.

1) 464개 항목 가운데서 그림이 들어 있는 항목은 모두 146개이다. 한 항목에 그림이 하나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항목에 그림이 둘¹¹⁰⁾, 셋¹¹¹⁾, 넷¹¹²⁾, 다섯¹¹³⁾, 여섯¹¹⁴⁾, 일곱¹¹⁵⁾, 여덟¹¹⁶⁾ 들어 있는 경우도 각각 14, 10, 4, 1, 1, 1개가 있다.

2) 그림 자료에는 일반 그림(주로 유화), 책에 들어 있는 그림, 벽화, 제단 그림, 성상 그림, 목판화, 동판화, 모자이크, 스케치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 자료는 거의 모두 천연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책의 그림 자료 밑에 그림 그린 사람이나 출처를 밝혀 놓은 160여 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류별로, 또 내용을 개신교에서 보통 쓰는 신구약성서의 책 배열 순서에 대강 맞추어 일부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⁷⁾.

3) 일반 그림(주로 유화)

- ‘뱀과 선악과와 하와’: 아버지 크라나흐(97쪽)
- ‘세 손님을 맞아들이는 아브라함’(1495/1500년): 요쎈 리프링크(21쪽)
- ‘광야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1658년): 구에르치노(23쪽)
-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1490년경): 안도레아 만테냐(143쪽)
-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종’: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8-1682년)(340쪽)
-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예서’(1640년): 마티아스 슈토머(92쪽)
-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라헬을 만난 야곱’: 요셉 폰 퀴리히(1800-1876년)(339쪽)
-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1789년): 프랑스와 즈라르(222쪽)
- ‘세겔에게 납치된 디나’(1531년): 프라 바르톨로메오와 줄리아노 부지 아르디니(375쪽)
- ‘모세와 아론에 맞섰다가 벌 받는 고라 일당’(15세기): 산드로 보티첼리(242쪽)

110) ‘기드온’, ‘룻’,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탄’, ‘삼손’, ‘성령’, ‘아담’, ‘에스겔’, ‘에스다’, ‘여호수아’, ‘세례 요한’, ‘이사야’, ‘가룻 유다’.

111) ‘노아’, ‘다니엘’, ‘다윗’, ‘사무엘’, ‘사울’, ‘아론’, ‘요셉’, ‘엘리사’, ‘이삭’, ‘헤롯 대왕’.

112) ‘베드로’, ‘야곱’, ‘엘리아’, ‘하나님’.

113) ‘아브라함’.

114) ‘모세’.

115) ‘바울’.

116) ‘예수’.

117) 그림의 제목이나 내용을 먼저 적고 쌍점을 친 뒤에 그린 사람의 이름이나 출처를 적기로 한다.

- ‘여자들의 찬양을 이끄는 미리암’: 크리스티안 켈러(1809-1861년)(274쪽)
-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뽑은 모세’(1841년): 모리츠 다니엘 오펜하임(225쪽)
- ‘병사들이 어떻게 물 마시는지를 살피는 기드온’(1636년경): 요한 하인리히 쇤펠트(107쪽)
-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룻’: 시므온 솔로몬(1840-1905년)의 수채화(345쪽)
- ‘무릎꿇고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죠수아 레이놀즈(1723-1792년)(353쪽)
- ‘사울 임금’: 렘브란트(1606-1669년)(367쪽)
- ‘목욕하는 밧세바’(1654년): 렘브란트(1606-1669년)(63쪽)
-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 파올로 베로네제(1528-1588년)(357쪽)
- ‘사렘다 과부에게 음식을 청하는 엘리야’(1640년): 베르나르도 스트룟지(80쪽)
- ‘산헤립의 패전’: 루벤스(1577-1640년)(358쪽)
- ‘아하수에로에게 유대인 구원을 청하는 에스더’(1600년경): 그레고리오 파가니니(96쪽)
- ‘세 친구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욥’(1855년): 알베르트 앙커스(135쪽)
- ‘예레미야’: 렘브란트(1606-1669년)(167쪽)
- ‘하박국’(1560년): 스페인 화가 코레아 드 비바르(15쪽)
-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1613년경): 루벤스(1577-1640년)(57쪽)
- ‘사탄을 무찌르는 천사장 미가엘’: 귀도 레니(1575-1642년)(273쪽)
- ‘예언자 호세아’(1400년경): 플로렌스의 화가 게라르도 스타르니나(140쪽)
-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마리아’(1670년대): 카를로 마랏티(257쪽)
-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206쪽)
- ‘춤추는 살로메’: 구스타브 모로(1826-1898년)(346쪽)
-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 얀 반 빌러트(1597/1598-1671년)(265쪽)
-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일리아 레핀(153쪽)
- ‘다불 산 위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1450년): 알레소 발도피네티(84쪽)

-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예수’: 루카스 크라나흐(186쪽)
 - ‘키스하면서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 두치오(231쪽)
 - ‘십자가를 지신 예수’(1550년경): 로렌조 롯토(192쪽)
 - ‘예수의 시체를 안는 마리아’: 프라 안젤리코(1387-1455년)(259쪽)
 - ‘그리스도의 시신을 넘겨받은 아리마대 요셉’: 로기어 폰 텐 바이텐(1399-1464년)(223쪽)
 - ‘전도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렘브란트(1606-1669년)(330쪽)
 -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바울’: 라파엘(1483-1520년)(315쪽)
 - ‘감옥에 갇힌 바울’: 렘브란트(1606-1669년)(314쪽)
 - ‘마가도 함께 한 자리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프라 안젤리코(1387-1455년)(326쪽)
 - ‘사도 베드로와 천국 열쇠’: 프란체스코 델 콧사(1436-1477/1478년)(322쪽)
 - ‘지체장애인을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15세기):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325쪽)
 -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16세기): 프란체스코 빗솔로(387쪽)
- 4) 책에 들어 있는 그림
- ‘뱀에게 유혹받는 아담과 하와’: 찬송가(15세기)(28쪽)
 - ‘벌거벗은 노아를 덮어주는 아들들’: 프랑스 성 루드빅 시편집(1260년)(118쪽)
 - ‘불붙은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뵈는 모세’(1210년경)(109쪽)
 - ‘하늘에서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 프랑스 책(14세기)(288쪽)
 - ‘발람과 그의 당나귀를 막아선 천사’: 스페인 성서(53쪽)
 -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다 주는 한나’: 성서 사본(15세기)(354쪽)
 - ‘물뱀들만 가지고 골리앗에 맞선 다윗’: 유대교 책(13세기)(108쪽)
 - ‘원로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르호보암 임금’: 프랑스 책(14세기)(342쪽)
 -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압 임금 메사’: 독일의 성서 사본(13세기)(269쪽)
 - ‘풍랑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비는 요나’: 비잔틴 책(10세기)(211쪽)
 -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빌로니아 임금 느부갓네살’(14세기)(291쪽)
 -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가는 여호야긴 일행’: 독일 책(13세기)(209쪽)

-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에스겔’: 람베트 성서(100쪽)

- ‘예언자 오바다’(1230년경): 프랑스 성서(301쪽)

5) 벽화

- ‘우물가에서 외사촌 라헬을 만나는 야곱’(16세기)(156쪽)

-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장면’: 맞티아 모르톨로니(약 1696-1750년)(6쪽)

- 라파엘의 로마 산 아고스티노 성당 벽화,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173쪽)

- 시스틴 성당 천정 벽화, ‘예언자 요엘’(1509년): 미켈란젤로(201쪽)

- 스피릿베르고 성당 벽화: ‘목욕하다가 낯선 눈길에 놀라 몸을 가리는 수산나’(389쪽)

- 세르비아 수도원 벽화: ‘인구 조사를 명령한 구레뇨’(15세기)(335쪽)

-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도메니코 기를란다 이오(190쪽)

- ‘사도 안드레, 야고보, 맞티아, 빌립보’(11세기 벽화의 일부)(38쪽)

-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오는 베드로’: 필립피노 립피 (1457-1504년)(327쪽)

6) 제단 그림

- 페어둔 제단, 니콜라우스의 ‘만나 담은 그릇을 언약궤에 넣는 아론’(에 나멜)(10쪽)

- 동방박사 제단,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R 판 바이텐(103쪽)

- 시에나 성당 제단, ‘헤롯 안디바 앞의 예수’: 두키오 디 부오닌세나 (1308/11년)(132쪽)

- 아빌라의 산토 도마 성당 제단,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202쪽)

-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253쪽)

- ‘사도 베드로와 바울’: 죠반니 밧티스타 치마 다 코네글리아노 (1460-1517/18년)(306쪽)

-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1360년): 루카 디 톰메(319쪽)

7) 성상 그림

- ‘복음서 기자 누가’: 그리스 아토스 산의 세르비아 수도원 힐라다르(14세기)(251쪽)

8) 양탄자 그림 - 엘리야의 걸옷을 물려받는 엘리사(브뤼셀)(86쪽)

9) 동판화 - ‘법궤를 옮겨가는 다윗’(1625년)(65쪽)

10) 목판화

-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롯’: 율리우스 폰 카롤스펠트(1794-1874년)(344쪽)

-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 구스타브 도레(1832-1833년)(363쪽)

11) 모자이크

- 베니스 산 마르코 성당 전실의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13세기)(298쪽)

- 로마 산타 마리아 마기오레 성당의 ‘동방박사 세 사람과 헤롯 대왕’(5세기)(125쪽)

12) 그밖의 그림들

- 스케치, ‘승전가를 부르는 드보라’: G. 도레(69쪽)

- 고대 돌 돌을새김 그림, ‘사냥하는 앓수르바니팔’(주전 7세기)(45쪽)

- 보석 박은 십자가 가운데 새겨 넣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모습(1000년경)(46쪽)

- 에나멜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달아나는 바울’(12세기)(310쪽)

- 향아리 그림, ‘포도 가지가 우거진 배 안의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72쪽)

- 은 옷장 그림, ‘신약성서의 아홉 가지 그림’ 등: 프라 안젤리코(1450년경)(178쪽)

13) 이처럼 그림 자료는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시대별(5-19세기), 작가의 출신 또는 작품의 출처 국가나 지역별(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로 보더라도 아주 다양하다. 이리하여 이 책을 통해 성서 속의 인물들이 서양 미술사의 형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쳐 왔음을 알 수 있다.

6. 이 책에 들어 있는 다른 자료

1) 성서 속의 인물들을 다루는 이 책 곳곳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는 지도나 도표나 주제 해설도 들어 있다. 눈으로 보더라도 얼른 구별이 되도록 간단한 주제 해설과 도표는 연한 노란색 상자 안에, 중요한 내용의 주제 해설과 지도는 짙은 고동색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

2) 지도로는 (1) 아브라함이 움직인 길을 알려주는 지도(18쪽), (2) ‘출애굽 경로’(281쪽) 지도, (3) ‘가나안 정복’(227쪽) 지도, (4)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34쪽) 지도, (5) ‘다윗 왕국’(66쪽) 관련 세 장의 지도, (6) ‘분단 왕

국’(170쪽) 지도, (7) ‘헤롯 왕국’(127쪽)의 지도, (8) 예수의 활동 지역을 알려 주는 지도(181쪽), (9) ‘바울의 선교여행’(312-313쪽) 지도 두 장, 모두 9가지, 13장을 각각 해설과 함께 제시한다.

3) 도표로는 (1)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의 가계도(24쪽), (2) ‘남북왕국의 임금들’ 연대표(171쪽), (3) 헤롯 가계도(130쪽), (4) ‘마카베오 가계도’(234쪽)를 제시한다.

4) 주제 해설로는 개별 인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통틀어 알아두면 좋을 만한 40개 주제를 다룬다. 이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성경 개론에 관한 주제: ‘예언서’(36쪽), ‘큰 예언서들과 작은 예언서들’(174쪽), ‘역사의 수수께끼들’(56쪽), ‘예수 말씀 자료’(265쪽), ‘바울 서신들’(317쪽).

(2) 여러 인물에게 공통되는 주제: ‘형제불화’(11쪽), ‘아이 못 낳는 여자’(359쪽),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나?’(158쪽), ‘꿈’(221쪽), ‘나실인’(353쪽), ‘사도들의 운명’(38쪽), ‘마술사’(381쪽).

(3)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되는 주제: ‘바빌로니아 노아’(299쪽), ‘씨받이’(117쪽), ‘자식 제사’(144쪽), ‘욥 이야기’(136쪽), ‘이스라엘의 바알’(47쪽), ‘예언자 공동체’(88쪽), ‘모압 비문’(270쪽), ‘고대 세계의 일곱 기적’(292쪽), ‘바빌로니아 유배’(414쪽), ‘적대적인 이웃들’(93쪽), ‘도미티안’(73쪽), ‘고대 세계의 세례’(207쪽), ‘오늘의 수전절’(235쪽), ‘나그 함마디 문서’(395쪽), ‘로마시대의 기독교 박해’(320쪽), ‘요세푸스’(334쪽), ‘노예제도’(303쪽).

(4) 교리 문제에 관한 주제: ‘삼위일체’(123쪽), ‘마리아의 어린 시절’(258쪽).

(5) 그밖의 특수 주제: ‘하나님의 여러 이름’(113쪽), ‘예수의 변모’(84쪽), ‘하나님이 쓰시는 짐승들’(87쪽), ‘다윗의 여인들’(63쪽), ‘산상수훈’(185쪽), ‘예술가 누가’(250쪽),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사람’(192쪽), ‘순교’(388쪽), ‘랍비’(104쪽),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205쪽), ‘사탄의 여러 이름’(361쪽).

5) 이리하여 이 책은 그저 성서 속의 인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같이 소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성서 백과사전의 역할도 한다.

7. 각 항목의 서술 형식

1) 각 항목의 서술 형식은 해당 인물에 대한 성서 기록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다. 맨 먼저 올림말로 이름을 적고 그 다음 줄에 그 이름의 원어 발음을 독일어 음역으로 소개한다. 셋째 줄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는 그 인물이 성서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간략히 밝힌 다음에 그 사람에 관한 성서의 기록을 쉽게 간추려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후세대에 끼친 영향을 서술한다.

2) 각 인물에 관한 성서 기록을 한데 모아 서술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배경이나 신학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그림 자료나 지도나 주제 해설을 따로 상자 안에 넣어 제시하기도 한다.

3) 성서 본문을 직접 인용¹¹⁸⁾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서술 내용이 성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거의 밝히지 않는다. 각주도 붙이지 않는다. 또 책 어디에서도 참고문헌목록을 찾아볼 수 없다.

8. 각 항목의 서술 내용

1) 이름의 원어 발음 음역은 그 이름이 본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시대와 언어에 따라 그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준다. 또 한 이름에 긴꼴과 짧은꼴의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둘 다 소개한다¹¹⁹⁾.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인물의 경우에는 그 출신지 언어 발음과 히브리어 발음 두 가지를 다 소개한다¹²⁰⁾. 더 나아가서 그리스어로 쓴 이름의 뿌리가 히브리어에 있을 때는 히브리어 발음도 밝힌다¹²¹⁾.

2) 원어 음역에 뒤이어 이름의 뜻을 밝힐 때는 엄격하게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따르기보다는 성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중적인 풀이를 따른다¹²²⁾.

118)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대어로 자유롭게 번역한 독어 번역본(*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1982)으로 인용하지만 때때로 루터 성서 1984년판(*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1984)으로도 인용한다.

119) 이를테면, ‘미가’의 경우에 히브리어로 짧은꼴은 ‘미카’이고, 긴꼴은 ‘미카야후’라 한다(270쪽).

120) 이를테면, ‘에월드로달’의 경우에는 그 히브리어 발음 말고도 바빌로니아어 발음인 ‘아벨 마르둑’도 적어두었다(98쪽).

121) 이를테면, ‘마리아’의 경우에 그리스어 ‘마리아’와 히브리어 ‘미르암’, 두 가지를 다 적어 놓아(256쪽),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로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122) 이를테면 ‘모세’ 이름의 뜻풀이가 그러하다(276쪽). 또 이름의 뜻이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뜻을 짐작해서 적기보다는 이름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어두었다. 첫 항목인 ‘아론’의 경우가 그러하다(7쪽).

3) 보통은 각 항목의 첫머리에서 각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잘 밝히고 있다(123).

4) 그런 다음에 한 인물에 대한 모든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틀어 나름대로 사건 발생 순서를 재구성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추려 적으면서 가끔씩 성서 본문을 인용한다. 이를테면, 바울 항목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관련시키면서 서술한다. 제한된 자료를 무리하게 부풀려 서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본문 자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애쓴다(124). 한 인물에 대한 성경 본문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대의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소개하기도 한다(125).

5) 성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는 중간 중간에 신학적인 풀이를 곁들인다(126).

6) 신구약성서에 들어 있는 개별 책들의 기록 목적, 저작 동기, 형성 과정, 형성 시기, 성격과 짜임새, 저자문제도 곁들여 알려준다(127).

7) 좀 더 적극적으로 역사 비평학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한다(128). 역사비평적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고도 쉽게, 또 중립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123) 이삭을 두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이 두 사람을 이 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점이 그 좋은 보기이다(144쪽).

124)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미가(271쪽)나 빌레몬(328쪽)의 경우에서 그런 보기를 볼 수 있다.

125) ‘헤롯 대왕’ 항목에서 헤롯 가계의 배경을 다루는 부분이 그러하다(125쪽).

126) 이를테면, ‘아브라함’ 항목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몇몇 의인들 덕택에 죄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아주 새로운 생각이 이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려 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성읍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함으로써 그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 받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게 처신한 것으로 풀이한다(20쪽). ‘예수’ 항목의 첫머리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잘 알려준다(182-183쪽).

127) 이를테면, 룻기의 생성 과정과 저작 동기와 시기(344-345쪽), 열왕기상하의 완성시기(79쪽), 욥기의 저작 시기에 대한 여러 의견(134쪽), 요나서의 성격과 저작 시기(210-211쪽), 로마서 저작 동기(318쪽) 등도 다룬다.

128)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세 가지 독립 자료로 거슬러 올라가고(16쪽), 사울의 등장과 관련된 사무엘상 본문은 세 가지 전통을 반영한다고도 한다(364쪽). ‘다니엘’ 항목에서 따로 상자에 넣어 주제 해설로 다루는 ‘역사의 수수께끼’(56쪽)에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연대가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말한다. ‘이사야’ 항목에서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173-174쪽), 다윗 시편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편 형성사의 일면을 언급한다(67쪽). ‘예수’ 항목 첫머리에서는 복음서 형성 과정(177-179쪽)도 소개하고 산상수훈의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주제 해설로 다룬다(185쪽). 이는 또한 ‘마태’ 항목의 주제 해설로 소개하는 ‘예수 말씀 자료’와도 이어진다. 예수 탄생과 최후의 만찬과 수난(179, 190-192쪽) 이야기가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세 복음서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도 다룬다(322쪽).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의 진정성 문제(317, 319-320쪽)와 베드로전후서의 진정성 문제(327쪽)와 바울 서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317쪽)도 알려준다.

독자들이 받아들일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가늠해 보게 한다.

8) 성서의 지명을 현재의 지명과 관련시켜 설명하기도 하고, 그 위치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도록 잘 아는 지명과 관련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그 장소의 중요성을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밝혀주기도 한다¹²⁹⁾.

9) 임금들의 재위 연대 말고도 어떤 인물에 관한 추정 연대, 연대 관련 내용, 중요 사건이 일어날 때 주인공의 나이도 밝혀려고 애쓴다¹³⁰⁾.

10) 시대 배경과 문화 배경에 관한 한, 신구약 정경과 외경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밖의 자료들도 소개한다¹³¹⁾.

11)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른 여러 정보도 알려준다¹³²⁾.

12) 본문 해석의 역사, 본문이 후대에 끼친 영향의 역사, 본문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온 역사와 관련되는 내용도 소개한다¹³³⁾.

129) 이를테면, ‘아브라함’ 항목에서 갈대아 우르, 하란을 각각 오늘의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터키 지역이라 하면서 이 두 곳 사이의 거리가 800킬로미터쯤 되고(16쪽),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00킬로미터쯤 된다고 한다(16쪽).

130)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16쪽), 아론의 출생 연도를 주전 1360년쯤이며(7쪽), 모세 시대의 이집트 통치자는 람세스 2세였을 것이라 한다(277쪽). 예레미야가 640년쯤에 태어나 예언자로 부름 받았을 때 12-13세였다(165쪽).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80세쯤 되었을 때라고 한다(58쪽). ‘바울’ 항목에서는 연대를 계속 밝히면서 이야기한다. 맨 먼저 주후 35년경 바울이 30세쯤 되었을 때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309쪽), 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310쪽),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고(312쪽), 51년에 데살로니가전서를(315쪽), 55-56년(또는 58) 전에 로마서를 썼고(318쪽), 63년 또는 64년 또는 67년에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처형되었을 것이라 한다(319-320쪽).

131) 이를테면,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쉬 이야기(299쪽), 아기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한 옛 중동 세계의 이야기들(276-277쪽), 임금 예후 시대의 아시리아 궁정의 역사 기록과 아시리아 비문(164쪽), 히스기야 시대 아시리아 산헤립 역사 자료(138쪽),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시대의 전설(96쪽), 욥기와 비슷한 내용의 옛 중동 세계의 자료(136쪽), 세레 요한과 에세네파, 쿨란 공동체의 관계(205-206쪽)를 알려준다.

132) 폴리앗의 키가 3미터라 한 것(61쪽), 솔로몬 성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각각 30미터와 10미터와 15미터라 한 것(350쪽)은 옛 길이 단위를 현대식으로 바꾼 것이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선물한 금 120달란트(왕상 10:10)를 독일 무게 단위로 바꾸어 85첸트너라 하고 그 값이 오늘의 1억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고 한다(351쪽). 엘리사가 고쳐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앓았던 병은 오늘의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 한다(89쪽).

133) 이를테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를 두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교의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증거로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참된 믿음의 모범과 순교의 상징을 보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기꺼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풀이하기도 했음을 소개한다(144, 147쪽).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 임금이었다고 하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전승(351쪽), 솔로몬이 새나 짐승과도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 코란의 언급(352쪽), 엘리사에 대한 말라기와 외경 집회서와 신약의

9. 이 책 전체에서 받는 느낌

이 책을 읽다보면, 신구약성서를 400여 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읽는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이야기꾼이 400여 명 인물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힌 내용을 밑바탕으로 때로는 필요한 설명도 덧붙이고 그림과 지도와 도표 등 보조 자료를 사용하면서 입체적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들려주는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0. 이 책의 좋은 점

1) 이 책은 성서에 관한 전문 학술 사전¹³⁴⁾이라기보다는 성서 원어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성서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그림을 비롯하여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이리하여 일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서 속의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담긴 여러 자료를 한데 묶어 쉽고도 재미있게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무엇보다도 성서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책이어서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해설) 성서 번역과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한 인물에 대한 성서 본문 기록과 관련 그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종합하여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에게

언급(85쪽),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한 유대교와 여러 기독교 신학자(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등)들의 해석(140쪽), 예수의 형제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161, 257-258쪽),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신약 외경 야고보 원복음서의 기록,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마리아 숭배 교리,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서로 다른 마리아 이해(258-259쪽), 베드로의 활동과 순교에 관한 초기 기독교 전승(327-328쪽)도 알려준다.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나온다는 점을 소개한다(224쪽).

134) 비교적 최근에 서양어로 나온 성서백과사전으로는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와 O. Betz, B. Ego, W. Grimm, W. Zwickel, eds., *Calwer Bibellexikon*, 2 vols., 2nd ed. (Stuttgart: Calwer Verlag, 2006)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알고 보면 중요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로마서 16:1-2에 나오는 뫼뫼의 경우가 그러하다(330쪽)

3) 이미 위 8.7)에서 알아보았듯이, 한 인물에 대한 성서 여러 곳의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비롯하여 역사비평학적 성서 연구의 결과를 굳이 감추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하면서도 독자들이 무엇보다도 성서 본문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4) 이미 위 8.12)에서 알아보았듯이, 주로 각 항목의 끝부분에서, 때로는 중간중간에, 각 사람이 그 이후 시대를 알려주는 성경 본문과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 이후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짚막하게나마 다룬다.

11. 이 책에서 고쳐야 할 점

1) 315쪽 왼쪽 밑에서 9째 줄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두고 구약 최초의 책이라고 한 것은 신약 최초의 책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 원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350쪽 왼쪽 위에서 22째 줄에서 솔로몬 성전의 길이를 3미터라 한 것은 30미터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상 6:2에서 60규빗이라 하기 때문이다.

3) 60쪽 왼쪽 아래 상자 안의 ‘목자’ 주제 해설 밑에서 7째 줄의 ‘다니엘’은 ‘다윗’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목자였던 경우가 많다고 하는 문장에서, 영어 원문에는 없는 ‘다니엘도 그러했다’(so auch Daniel)는 삼입구를 넣었는데, 다윗 항목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예언자 이사야가 주전 760년 직전에 출생했으리라고 한 뒤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뵈던 때인 웃시야 임금의 죽던 해를 756년(영어 원본에서는 742년)이라 했다(173쪽). 그렇다면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사야가 열 살도 되기 전에 겪은 일이 된다. 이는 연대표를 바꾸면서 생긴 14년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사야의 출생 추정 연대를 영어 원본 그대로 옮긴 데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새 연대표를 쓰기로 했으면 출생 추정 연대를 빼든지, 아니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5) 173쪽 왼쪽 밑에서 12째 줄의 ‘천사’(Engel)는 영문 원본 166쪽 왼쪽 위

에서 11째 줄의 seraph을 따라 ‘스랍’(Seraf)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6) 이집트 총리 요셉을 찾아간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켜 영어 원본에서는 ‘지치고 배고픈 목자들의 무리’로 표현한 것을 독일어 번역본 221쪽 오른쪽 위에서 둘째 줄에서, ‘형제자매’(Geschwister)로 줄여 옮긴 것이 어색하다. 요셉 앞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자매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들’(Brüder)로 옮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12. 이 책에서 아쉬운 점

1) 영어 원본이 1994년에 나왔으므로 최대한 잡아도 1990년대 초까지 나온 성서학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뒤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한 성서학의 열매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2) 이런 점은 그 어디서보다도 구약 예언자들의 경우에 내용이 다소 빈약한 데서 잘 드러난다. 예언자의 삶을 두고 이야기해 주는 본문보다는 예언자들이 시 형식으로 선포한 예언이 예언서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각 예언서의 중심 메시지는, 항목 미가에서 하듯이(272쪽), 어떤 식으로든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아모스 항목에서 아모스의 출신, 직업, 시대 배경은 비교적 잘 다루었지만 아모스 5장 24절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레미야서를 예언자가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책이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것(165쪽)도 한 세대 전의 연구 결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3) 또 예언서 곳곳에 들어 있는 메시야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이 그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아쉽다(176쪽). 아마도 이는 ‘임마누엘’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었기 때문인 듯한데(143-144쪽), 거기서도 임마누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관련성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힘들다.

4) 이미 위 4.7)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아무래도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은 빼거나, 맨 뒤에 따로 한데 모아 부록으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5)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머리말에서 인물 선정의 기준, 인물 관련 내용의 서술 방식과 원칙, 중요 참고문헌 등도 짧게나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주요어>(Keywords)

성서, 사람, 전기, 사전, 그림.

Bible, Men/Women, Biography, Lexicon, Picture.

(투고 일자: 2015년 2월 12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4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진명, 『모세를 만나다. 하나님의 사람, 소통과 공감의 지도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김학철,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오인명, 『성경인명지명대사전』, 서울: 기문사, 1954.

오우슬러, 풀턴(Fulton Ousler), 『위대한 생애』, 홍성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폴락, 존(John Pollock), 『사도 바울』,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9.

Betz, O., et al. eds., *Calwer Bibellexikon*, 2 vols., 2nd ed., Stuttgart: Calwer Verlag, 2006.

Freedman, D. 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van der Toorn, K., Becking B., and van der Horst, P. W.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 Michigan: Eerdmans, 1999.

<http://www.bibelonline.de/products/Themenjahr-2015-Bild-und-Bibel/Die-Menschen-der-Bibel.html>

<Abstract>

**Book Review —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Donghyun Park

(a retired professo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Book can be regarded as an adapted translation of *Who is Who in the Bible? An Illustrated Biographical Dictionary*(The Reader's Digest Association, 1994) which contains more than 500 biographical articles on men/women, gods, and angels in the Bible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The German translation, omitting 41 articles from the English original, has gained a new clothing particularly by changing most of about 200 illustrating materials(oilpaintings, aquarelles, frescos, altarpieces, pictures in the books, icon images, carpet pictures, wood engravings, copperplate engravings, enamel paintings, mosaics, and so on) with better ones.

Each article of the lexicon consists of the name of the person treated, the transliteration of his/her name in the original language(s), explaining the meaning of his/her name, evaluating of the person in the biblical traditon, summarizing the biblical stories about him/her sometimes with useful informations not only on the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but also on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nfluence, and reception.

This illustrated biographical dictionary seems to be edited for the ordinar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life of men/women in the Bible. Throughout the whole book the biblical texts are retold on the basis of well-balanced exegetic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s so easily and vividly that readers could feel as if they were hearing a storyteller recounting 400 individual stories of life. A great advantage from this book lies in the abundant illustrated materials, which can afford readers to take a glance at the history of Western Biblical Art. Other extra-biblical materials help them to understand the biblical stories on wider dimensions. Pastors and teachers can make good use of them.

Some mistakes need to be corrected. For example, in the Article on Paul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is falsely said to be the first written book of the Old(!) Testament(p. 315). Moreover, it would be better if the articles on the gods and angels could be gathered and put at the end of the book as appendices.

In any case, the German Bible Society has succeeded in notably upgrading of a book originally published in a somewhat old fashion for the modern people. Now readers can understand better than before how God has been using various kinds of people to fulfill his own will in the human history.